

우리 아버지는 '막걸리 배달부'



제갈인철
한국문학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뮤지션

아버지는 막내인 내가 최종학교를 거의 마치도록 배달 일을 하셨다. 초등학교 때 내가 학교에 제출한 아버지 직업은 '막걸리 배달'이다. 그때는 주류운송업이라는 고상한 표현도 몰랐고, 알았다해도 그리 쓸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언제나 아버지의 직업은 내게 큰 자랑거리였으니까.

고향 면소재지에는 한 개의 양조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조된 막걸리는 각 동별로 나눠진 개인 운송업자에게 판매권이 주어졌 있었다. 주문은 양조장이나 우리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했으므로 우리집은 아버지의 거래처이기도 했다.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 본 양조장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그날 팔려나갈 술통들이

쌓여있는 마당을 지나 커다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술 익는 향이 가득했다. 지금도 막걸리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주조탱크 앞에 서있는 어린 나로 돌아간다. 맹물처럼 아무 맛없는 인생이라 느껴질 때 다시 내 삶에 발효점을 회복시켜주는 그때의 냄새.

양조장 마당에는 배달부들의 운송수단 오토바이들이 서있었다. 배달시 운송수단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바뀌는 추세였다. 아버지는 훨씬 이전부터 50cc 오토바이를 탔었고 나중에는 125cc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오토바이 뒷자리는 철근으로 단단히 받침대와 지지대를 만들고 양철판을 깔았다. 말통 몇 개는 철판위에 얹고 다른 몇 개는 짐칸 테두리 철근에다 갈고리를

이용하여 좌우 무게균형을 맞추어 걸었다. 그러면 제법 묵직한 주행감으로 바퀴 4개의 자동차 부럽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오토바이가 생계수단 1호이다 보니 우리 4남매 모두들 오토바이는 일찌감치 마스터했다. 우리동네 대부분의 집이 농사를 지어서 친구들은 소달구지나 경운기를 탈 때 나는 50cc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등교를 하는 호사를 가끔 누렸다. 양조장 위치도 다니던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만나는 날에는 걸어서 한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순식간에 와버렸다.

평생에 걸쳐 아버지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아침 일찍 양조장으로 출근해서 전날 저녁 들어온 주문량의 막걸리를 담아 거래처들을 한바퀴 돌고 오셨다. 그리고는 아침 밥상을 앞에 놓고 조금 전 배송한 목록을 정리했는데, 그 가게에 한말을 놓고 왔는지 두말을 놓고 왔는지 혼동되어 밥이 식도록 혼잣말을 하시는 날이 많았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에겐 겨울이 가장 지내기 어렵다. 아침마다 시동이 안 걸려 애를 먹고, 감기와 기침은 끊일 날이 없다. 겨울철 안방에는 방한 마스크 수십개가 주렁주렁 널려있었다. 온갖 날씨의 이변속에서도 아버지는 우리와 저녁식탁에 같이 앉기 위해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셨다.

아버지의 퇴근소리와 함께 우리집 마당에는 저녁이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구

수한 밥 냄새를 풍겨낼 때, 마당에 귀를 대고 누워있던 개들이 후다닥 일어나 대문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우리는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듣는다. 공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무얼 하든지 모든 식구가 대청마루로 마당으로 달려 나온다.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아버지는 듣기 좋아했다. 개들은 오토바이에서 채 내리기도 전의 아버지에게 뛰어올라 안그래도 막걸리 이리저리 묻은 바지에 잔뜩 흠을 묻혀놓았다.

막걸리 배달부 아버지의 퇴근은 하루중 가장 요란한 우리집 마당의 축제를 불러왔다. 아주 어렸을 때는 가끔 오토바이 짐칸에 막걸리 대신 내 선물이 실려있기도 했다. 세발자전거나 타고 노는 장난감이 내려지는 날에는 함박눈이 오더라도 그날밤 내내 마당을 돌고 또 돌았다.

아버지의 퇴근은 곧 우리의 저녁 밥상을 의미했고 고양이에게 생선뼈의 의미가 있었다. 오토바이 소리에 별들은 눈을 떴고 달은 환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퇴근소리를 들으며 하루 하루 성장했고 어찌면 그 소리와 막걸리 냄새를 듣고 말지 않게 된 때부터 늙어갔는지 모른다. 내 속에 그 소리와 냄새를 다시 찾아내어 나의 오늘을 푸르게 만들고 싶다.

아버지에게 평생 함께 한 친구 두분이 계시다. 그분들이 우리집에 놀러 오시는 날이면 대청마루엔 흥겨운 술판이 벌어졌다. 나는 작

은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가 부르는 남
인수의 노래들을 들었다. 불러봐도 물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나는 얼굴도 못본 할머니
를 아버지는 왜저리 평생토록 그리워하는지
그 땐 이해하지 못했다. 그 때 아버지의 나이
에 가까워오니 아버지의 노래를 조금씩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
으니까.

어머니 역시 막내인 내가 최종학교를 마치
기까지 가게를 운영했다. 테이블이 한두개 있
어서 저녁이면 술손님들이 모여 들었다. 여름
날의 폭우로 인해 농작물을 망친 동네 어른들
은 우리 가게에 와서 막걸리 잔을 들이켰다.
논밭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도
그광경을 보고 합류해서 잔의 수는 계속 늘어
났다. 농부들은 경외스런 하늘에다가는 못한
푸념들을 술잔에 부어서 주거나 받거나 나눠
마셨다. 슬픔을 나눠 마셔주는 술친구가 있어
그날의 노동은 힘들지 않았고 다시 풍작의 소
망을 품을 수 있었다.

막걸리에는 노래가 따르고 노래에 꼭 따라
오는 것이 바로 젓가락 장단이였다. 쇠젓가락
은 막걸리와는 찰떡궁합의 타악기였다. 지루
한 정치 이야기나 마을 대소사 이야기가 시들
해질 즈음, 누군가 젓가락을 두드리면 옆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트롯트를 취학
연령 이전에 섭렵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난타의 시조는 막걸리판이라고 해야한다.

막걸리 심부름을 오는 아이들에게서 배달

사고도 났다. 다들 집에서 막걸리 심부름을
시킬때는 한 되짜리 주전자를 아이에게 들려
보냈다. 가게의 술통 두경을 열면 손잡이가
술에 닿지 않도록 끈이 매달린 자루바가지가
동동 떠있고 그순간 구수한 막걸리 냄새가 퍼
져나온다. 정량의 기준이 있을리 없다. 그저
눈대중으로 주전자의 어디쯤 차면 두경을 닫
고 한 되 값을 받는다. 아이는 어두운 골목길
을 걸으며 조금 전 두경을 열 때 올라온 냄새
를 떠올리고 주전자에 입을 댄다. 다음 날 그
집 어른이 지나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넣어
달라고 우리 가게에 요청을 했다. 어머니는
그저 웃기만하셨다.

우리집 가게에는 주변 방직공장이나 염색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외상장부가
있었다. 매일 장부에 기록하고 월급날 갚는
식이였다. 그중에는 갑자기 직장을 옮겨 본의
아니게 외상값이 밀려있는 사람이 있었다. 추
석이나 설이 되면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멀리
대목 수금을 하러 다녔다. 다들 어머니를 반
기며 수금에 응했지만 연탄 없이 겨울을 날
정도로 더 궁핍해진 여공 누나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고개속인 그 누나들에게 되려 연탄
값을 주고 돌아 왔었다. 시간이 흘러 그 사람
들은 한아름 선물을 들고 우리 가게로 다시
찾아와서 외상값을 갚았다.

아버지가 막걸리 통을 신고 이골목 저골목
누비는 동안 시간은 잘도 흘러갔다. 세월이
변하고 막걸리도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쌀막걸리가 등장하고 양조장에서 출고되는 포장도 말통에서 작은 플라스틱 병으로 바뀌었다. 배부르고 맛이 거친 막걸리보다는 깔끔한 맛의 소주와 맥주가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나 역시 대학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건네는 막걸리 잔이 무척 낯설었다.

양조장에서 하루에 제조하는 양도, 배달부의 활동도 점점 줄어들었다. 농촌마을은 개발 붐을 타서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근 도회지 사람들이 마을로 유입되어 왔다. 가게와 술집마다 소주 맥주로 가득차게 되면서 면소재지 양조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오랜 세월 구수한 냄새를 내뿜던 커다란 주조탱크는 폐기되었고 아버지를 비롯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배달부들은 평생의 생업을 내려 놓았다.

막걸리는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했다. 다른 이들에겐 그저 술의 한종류였겠지만, 나에게 우리 가족사가 역사의 뒤편길로 물러나는 듯하여 애잔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막걸리의 시대가 왔으니, 옛 막걸리 중흥기의 중심에 있었던 아버지의 감흥이 남다른 것이다.

얼마 전 고향에 가서 배탈이 나신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의사가 진찰을 위해 상의를 걷어 올렸다. 그옛날 탄탄하기 이룰데 없던 아버지의 배는 얼굴만큼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옆질러진 막걸리가 말라붙은 모양의 피부로 변해있었다. 아버지도 나도 각기 다른

이유로 아픈 속을 진정시켜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막걸리 피부는 내가 물려받는 가장 값나가는 유산이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게 자신의 직업과 마주했던 마음과, 험한 세월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몸을 생각할 때, 내게 밀려오는 오늘의 힘겨움쯤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

막걸리 한잔의 힘으로 나무를 한 짐 하고, 드넓은 논이 내기를 똑딱 해치우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의 우리는 백열등 흔들리는 포장마차에서 서로에게 막걸리 한잔씩을 따르자. 그리고 발효된 희망을 마시자. 이젠 늙어버린 우리의 아버지가 젊은 날 뿜어내던 힘이 우리의 몸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는 달려나가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 재미없는 곳에 흥을 일구면 좋겠다. 내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막걸리. 그 막걸리가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큰 힘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에 고향 가면 그윽한 향의 막걸리를 큰잔에 따라 아버지와 건배를 하련다.

